

## 부산건축의 어제와 오늘 - 그 연속성으로서의 지역성

The Past and Present of the Architecture of Pusan  
- Its Regionalism as Continuity

우동주 / 동의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Woo Dong-Ju

### 서: 지역성에 대한 시각

'부산건축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를 받아들이고 어떠한 전개가 가능할지 선뜻 떠올릴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부산건축에 대한 지역탐방 성격의 글들이 여러번 다른 잡지에서 다루어진 바 있어 부산건축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상황에 대한 소개수준의 내용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문화적 요소와의 불연속적인 단절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서구적 근대화론 치닫고 있는 부산지역의 건축을 과거와의 연속성의 복구선상에서 부산건축이 갖는 지역성의 의미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급속한 사회문화의 변화속에 역사문화 혹은 지역성에 집착해야할 당위성은 어디에 있을까?

또한 현대화된 부산의 모습 뒤의 지역성을 캐내는 작업이 어디서부터 가능할까?

최근 건축적 사고의 발전 중 하나는 전통적인 것과 혁신적인 것에 대한 개념의 상호협조에 의한 성장발전에 대한 믿음이다. 기존에 있었지만 무관한 개념으로 생각되던 것들과 현대적 상황 사이에 연관성을 맺음으로써 오히려 자유롭고 활기있는 상상력으로 인한 창의적 작업이 가능할 수 있음이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과학철학이 사회학적 패러다임의 주된 역할을 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전통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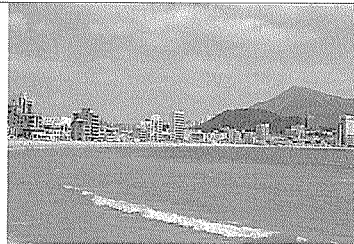
다. 기존의 것과의 연속성을 통해서 생성될 수 있는 것이 전혀 다른 것에서 불연속적으로 생성된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는 나올 것이 없는 것이다 (Nothing Comes from Nothing.) 가장 성공적인 현대 건축도 오늘날까지 연관을 잃지 않은 과거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얼마나 많은가!

파리의 급진적 경향의 건축물들은 파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지역성을 형성하고 있는 탄탄한 역사적 전통이 있기에 실험적 당위성을 갖는 것이고, 알도로시의 유추적 건축의 수준높은 추상성도 이탈리아 도시들이 갖는 풍요로운 역사성이 없다면 그 의미를 잃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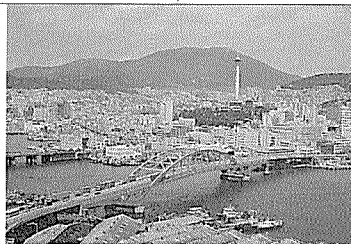
과거와 현재와의 연속성으로서의 지역성을 추구하는 작업은 하나의 운동으로서 최근 모더니즘을 수출한 서구사회에서 더욱 어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 모더니즘은 부분이었지만 우리에게만 전부였던 점을 두고 볼 때 지역성의 회복은 그만큼 우리에게만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세계적으로도 서구가 최고인 것만을 항상 생각 해왔던 정신적인 세뇌 이후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공적인 서구화의 모델로 비쳐지고 있는 싱가포르에 대해서 오히려 서구인의 시선들은 그들이 문화적으로 기권 내지는 포기하고 있음에 매우 실망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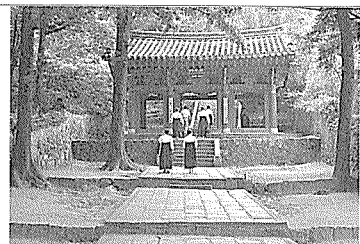
흔히 제3세계에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문화적 생존을 위한 투쟁을 연상시키는데 정체성(Identity)의 발견, 혹은 확보란 표현을 호소하듯 사용한다. 이렇듯 건축적 연속성에 대한 필요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문화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건축적 이미지를 느끼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무의식적 개발의 모더니즘에서 잃어버린 문화, 장소, 기후, 그리고 건물들 사이의 완벽한 조화를 다시 연속시킬 수는 없을까? 이것을 다시 확보해야 하며, 일반적인 것이 지속적이며 적응력있는 건물형태의 모델이 될 때 지역주의자들의 역할범위도 넓어질 것이다



광안리해변



영도다리



금정산 범어사

## 부산건축의 배경: 역사성과 지역성, 그리고 몇가지 딜레마

부산은 삼한시대에 가락국과 신흥신라간의 접경지대였으며 고려말기에는 부산포라는 명칭이 나타난다. 부산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항한 항구이다. 따라서 부산의 근대개항은 그대로 한국의 근대개항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으로 우리나라최초의 양식건물인 일본관리청이 1879년에 부산에 준공되었고 상품진열관, 부산세관, 부산우체국, 부산역사 등 많은 근대식양식건물이 완공되었다. 1905년 경부선철도가 운행되고, 1921년에는 초량, 좌천, 영주동 일원에 대한 가로정비사업의 시작과 함께 도시형성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1924년 경남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발전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해방을 전후하여 인구 30만이던 부산은 6.25를 지나면서 10년만에 100만을 넘는 대도시로 진입하게 된다. 도시개발이 정체된 상태에서 인구만의 증가는 도시체계의 혼란과 구조의 취약성을 한층 심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지역적으로 부산은 우리나라의 동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관문이다 부산항의 전면에는 영도가 동남으로 놓여 있어 태풍의 흐름을 막아주고 간만의 차도 1.3 미터 내외여서 천연적인 항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일본의 대마도까지 불과 56킬로미터의 거리이고 시모노세기까지는 246킬로미터라는 가까운 거리 때문에 일찍부터 일본과는 숙명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부산의 자연환경은 특이하다. 바다를 길게 면하고 있으면서, 낙동강을 끼고 있으며 도심 가운데 높은 금정산이 있고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온천지대를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배산임해하여 낙동강하구의 삼각주지역, 그리고 대한해협에 면접하고 있는 해안성의 섬(25개)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변의 자연적 여건이 숨막히는 거대도시의 치명적인 결함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전원도시지역을 형성케 해주는 값진 지리적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이 살기에 좋고 흥미로운 도시인가 하는 물음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우선 도심속에 실만한 공간은 고사하고 마음놓고 걸을 수 있는 보행로가 거의 없으며, 더구나 우리나라 어느 도시보다 가로수가 빈약하다. 그동안 한마디로 숨실만한 여유공간없이 차도와 콘크리트건축물로만 짝꿍 채워온 셈이다.

이러한 부산의 지역성 내지는 역사문화를 거론할 때 부딪히는 딜레마가 몇가지 있다.

첫째,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부산에는 개항 이전에 건축된 전통건축이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많은 서양식건물이 남아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산에는 근대 서양건축이 계승되거나 도시맥락적 의미에서 논의가 있기도 전에 모조리 지워버리고 말았다. 말하자면 역사적인 사건들에 비추어 그 흔적들이 도대체 남아 있는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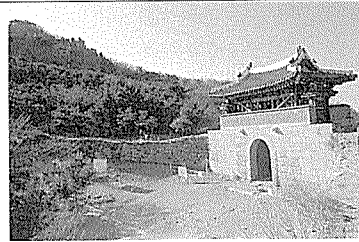
건축환경적으로 볼 때는 보존할만한 Context를 도대체 찾기가 어렵다. 역사적 흔적으로서의 건축물자체가 곧바로 지역적 아이덴티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맥락의 출발점으로 삼을만한 장소가 원천적으로 드문 것이다.

둘째, 도시의 맥락과의 연계성은 고사하고 경사지와 도심 한 가운데 등 곳곳에 파상적으로 솟아있는 고층아파트의 숲을 바라보면 미래도시 부산의 모습은 암울할 정도로, 전도시에 걸쳐 작성된 기본지침을 구체화시켜 주면서 건축규제를 보조하는 이른 바 건축과 도시를 일원화시켜 규제개발할 수 있는 중간단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닐지 모르나 부산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바람직한 도시환경개발을 유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지적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용도지역의 규제자체가 지역내부 특정지역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부산전체를 두고 볼 때는 바다는 도심과 자연스레 연계되어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해변은 모두가 선착장이나 부두로서 시민들이 접근가능한 친수공간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해변공간은 부산의 도시구조상 핵심부분이지만



범어사 일주문



금정산 남문



자성대

해변시설의 신설, 확충, 정비에 관한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부산시의 계획에 해변을 포함시켰을 경우 중앙정부의 거부로 무산된 사례도 있다.

넷째, 450만의 대도시로 성장한 부산은 아직껏 짜임새있는 질서와 도시상도 없고 도시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지닌 채 오늘에 이른 것이다. 더구나 해방후 수립된 1,2,3차 도시계획중 일부가 일제의 개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나 이를 정당하게 평가할 창구가 없다는 것이다.

2차대전후 독립한 국가의 대부분은 그 성장과정이 식민유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존구조를 유지하거나 재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는 부산과 같은 지역건축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 결: 부산건축의 세계화와 지역화(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를 위한 과제

현대기술의 발달이 이 도시속에서 인간에게 쾌적한 공간을 왜 조성하지 못하였을까? 반대로 역사적인 도시에서 지금까지 볼 수 있는 풍요로움에 감흥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문화적연속성이 가져다주는 총체적 안정감 때문이 아닐런지...

지금부터 꼭 10년전 부산에는 5개의 4년제 대학, 5개의 전문대학이 있었고 한 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건축전공 학생은 약 5백명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수적으로는 두 배로 늘어났고, 롯데호텔과 백화점이 서면의 옛 부산상고 자리에 들어서면서 부산의 상업적 중심가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시청이 이전하면서 서면로타리에서 동래까지가 부산의 중심축이 되고 있으며 이 선형의 축은 계속해서 범어사, 양산, 울산으로 뻗어 있다. 부산의 역사성과 지역적 아이덴티티(Identity)를 두고 생각해 볼 때 본래의 상권을 형성하던 광복동, 남포동이 갖는 지역적 의미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더욱 강화시키므로써 부산의 지역적 요소들을 다해확하여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느낄 수 있는 장소성을 고루 갖추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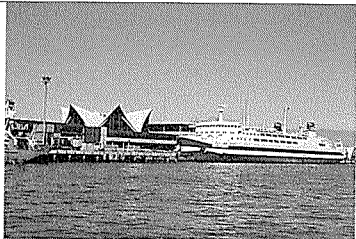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역성의 확보라는 것이 문화적인 연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두고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전통적, 문화적 맥을 찾아 나서는 작업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사안인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부산을 읽을 수 있는 문화적 요소와의 단절을 어디서부터 그 맥을 찾아서 이어가야 할 것인가? 각 구청에서는 구의 영역내에 남아 있는 전통문화적 요소를 발굴하여 구의 지역성을 규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의 영역내 건축물에 대한 소위 건축심이라는 것도 이를 근거로 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구청별로는 용도지역내 각 특정지구들을 세분하여 각 지구별로 기능배치와 기능별 용적배분까지 고려한 종합적 도시설계기법이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도입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건축이 중심이 되어 도시계획과 함께 현상설계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세계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일반적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 숨쉬고 있는 부산 사회를 냉철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건축은 현실과의 부딪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축이 들어설 장소, 역사나 문화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장소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작업이 곧 건축이므로 이를 위한 풍부한 단서들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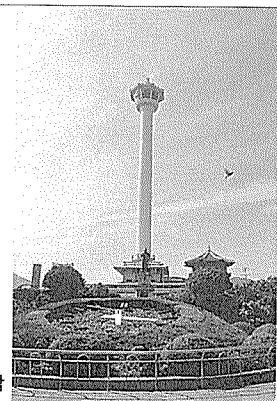
실제 가능한 설계접근론을 생각해보면 도시경관이라는 단서, 길에서 찾는 단서, 길들이 만나는 비교적 오래된 장소라는 단서, 경사지에서 바라다 보는 단서, 바라다보이는 경사지라는 단서, 바다를 바라보는 단서, 바다에서 바라다 보이는 단서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건축대전과 같은 막대한 에너지를 이러한 단서를 찾아내어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도시란 결국 시민들이 편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애착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크게 미흡한 부산을 살기에 흥미로운곳으로 만드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부산을 도시문화로 조



국제 여객터미널



U.N. 묘지



용두산공원과 탑

성할 수 있는 노력, 도시문화에 걸맞는 부산을 만드는 노력이 요구된다. 도시는 즐거운 체험의 대상으로서 매력과 흥미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풍요롭게 할 단서들을 스스로 찾고 가꾸어야 한다. 따라서 건축가, 도시계획가, 관·민간업자들이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담론의 장이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

부산은 단순한 건설의 시대를 벗어나 고도화된 도시개발의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토지집약적, 기술집약적, 복합기능적, 민간주도적인 데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90년대 프로젝트들은 도시의 건축은 총체적으로 다루는 데에서 착안되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건축에서도 도시맥락적 성격이 강조되는 프로젝트의 출현이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이 부산을 사로잡았던 열기였던 데 비해 건축이란 상대적으로 진지한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 지난 시대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시대적 변화와 함께 건축환경에 대한 사회의식이 고조되고 활발한 건축적 탐구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아리아부대의 이전 등 도시재구축을 위한 도전적인 프로젝트의 출현이라는 상황이 그것이다. 건축계내에서는 실험적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 그 활약방향이 뚜렷하지 않고 젊은 건축가들의 방향이 존재한다. 여기에 IMF가 겹치므로서 자체적 자정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건축계에 자기점검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소위 '위기가 호기' 일 수도 있는 것이다. 다양한 방향의 탐색과 실행, 활기있는 논쟁이 펼쳐지면서 건축적 탐구의 줄기가 보다 선명하게 부각되고, 새로운 경향의 작품이 다양하게 전개될 것을 기대해 본다.

이러한 개별적 어휘의 다양화와 더불어 미래에는 생태적 개발(Eco Development)과 지속성(Sustainable)을 지닌 개발의 연관개념이 효과적인 자기발전적 도구로서 개발에 관한 새로운 발상으로 떠오를 것이며 지역성이 바탕이된 세계적 수준의 개발(Global Development)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합리적 방향은 지역성의 정립을 보다 필요로 할 것이다.

부산  
Pusan

지역건축탐방 regional architecture

## 부산건축을 위한 네가지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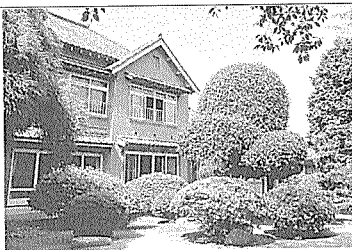
Four Propositions on Pusan

이종건 /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by Lee Jong-K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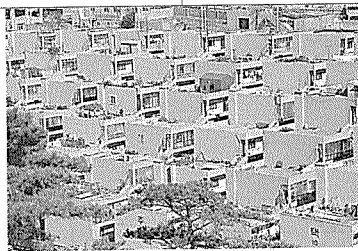
### 탓을 바깥으로 돌리지 말자

이야기 주제로 '부산의 건축' 혹은 '부산의 건축가'를 잡으면 화살은 십중팔구 구조의 문제로 날아간다. 경제바탕이 부실하다든지, 고급 인력이 태부족이라든지, 대중의식이 말할 수 없이 낮다든지, 전문 관료가 허무할 정도로 비전문적이란든지, 전반적인 문화수준이 발바닥이라든지 하는 따위가 번번이 거론된다. 이런 현상들은 딱히 부산에만 한정된 것이라기보다 우리 땅 모든 곳에 만연해 있다고 지레 단정해도 별 무리가 없겠지만, 특히 부산에는 그 정도가 심하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싶다. 거기에 설계사무소들마저 꼬사래기 제살 뜯기 수주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그나마 신진 건축가들이 고개 들어 숨 한 번 쉴 천혜의 기회인 현상설계마저 더러운 돈 먹이기, 공무원들의 말도 되지 않는 경기규칙 만들기, 함량미달 교수들의 고정심사위원 때말기, 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전문가들(도면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의 심사위원 행세하기 등으로 아예 쳐다볼 수조차 없는 지경이고 보면 문제가 마땅히 '구조적으로' 심각할 수밖에 없음에 게거품을 물지 않는 이가 오히려 이상할 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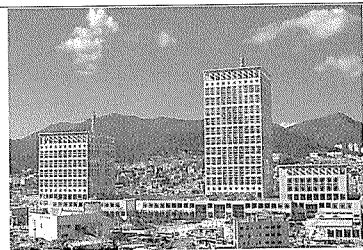
그러나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짓이다. 아무리 모든 탓을 바깥으로 돌려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혁명으로 사태를 왕창 바꿀 수 없는 한 오히려 상황은 더 개악될 뿐이다. 척박한 상황에 저주를 떠부어도 다시 그 상황은 삶이 되어



임시수도 기념관



용호동 테라스 하우스



부산 시청사